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40 헬컴 투 시월드(재) 50 이영돈 PD의 막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획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소치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3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굿모닝 소치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10 소치 2014 하이라이트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트윈생일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4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좋은아침
12	30 부부극장 콩짜기(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뜨거운 겨울 소치 2부	00 소치 2014 특집 SBS12뉴스 30 KBS 열린토론회(재)
1	40 뉴스 추적자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식	0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30 세계 대기행 40 소치 2014
2	4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물루말라 동물여행(재)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겨녁뉴스
3	00 뉴스토크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최종회·재) 55 TV 유치원 공디공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겨녁뉴스
4	00 박종찬의 뉴스쇼 캐드나미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완전정복) 55 트윈생일 체조(재)	25 꾸러기 케라투스 코리요 (첫회)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크로스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스노보드 남자 크로스 결승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스노보드 남자 크로스 결승	20 MBC 가요 베스트 05 날씨와 생활 10 써네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30 컬투의 배란다 쇼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첫회)	00 월화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문/화/신/책 포플러	00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1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볼슬레이 날 2인승 결승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 -스키점프 남자 단체 리지힐
11	00 이영돈·신동엽 전투맨(재)	30 KBS 뉴스라인	15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1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볼슬레이 날 2인승 결승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 -스키점프 남자 단체 리지힐
12	10 모구드라마(싸인)(재) ①:20 그때 그 사람(재)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결정 여예선 (대한민국:캐나다)	30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여기는 소치 -볼슬레이 날 2인승 결승 등	35 소치 2014 -아이스댄스프리 -스키점프 남자 단체전 1·2차 등

EBS

06:10 디문화 고부 열전(재)	10:50 최고의 오리버걸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30 피들리 팜
07:00 미술탐험대(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19:50 모피와 친구들
07:15 정글북(재)	(행기)(재)	15:45 외골짜기 친구들	20:00 EBS 뉴스
07:3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명 유치원(재)	20:20 오리버전
07:45 뽀뽀뽀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20 캐니발	20:50 세계테마기행 <필리핀>
08:00 덩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6: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13:10 줄거는 수학 EBS MATH	16:45 골디와 친구들(재)	(여잔)
08:35 방구대장 뽀뽀이	13:20 배움나래(1·2)	17:00 방구대장 뽀뽀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50 골디와 친구들	13:30 골골 페피는 즐거워	17:15 시계마을 리카톡	<수학의 위대한 여정>
09:05 두디다(재)	13:45 비두와 친구들	17:30 뽀뽀뽀 뽀로로	22:45 달라졌어요
09:20 부모	14:00 잔나비 레미우스 박사님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인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10:00 한국기행	14:15 뽀인(재)	18:00 미연이로봇	23:40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강원도)(재)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15 정글북	01:00 디문화 '사랑'(재)
10:20 오리버전(재)	15:00 열려라 아비디스	18:30 생방송 특! 특! 보너하니	01:30 희망동경(재)

EBS플러스1

00:00 알짜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12:10 5분 과학·물리 I
(인문계 주재별 기술분석)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특혜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틸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생활과 윤리>(재)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압축틸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특혜 기본 I>(재)	19:50 5분 과학·물리 I (재)
09:10 "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0:00 뉴 틸스런 <사회>(재)	21:00 " <한국사>(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22:00 " <동아시아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중앙 <국어③-1>
07:30 나의 성공비결	15:40 " <국어④-1>
08:00 9급 공무직 시험 대비 강좌	16:20 " <국어④-1>
08:30 점검소강좌	16:40 " <국어④-1>
09:00 출거문 수학 EBS MATH	17:20 초등 개념 잡기 <국어>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50 스텔랜드(재)
09:50 " <수학①②>	18:00 TV 중학 <비문학③>
10:30 " <역사①>	18:40 " <비문학③>
11:10 " <국어③④>	19:20 " <국어①②>(재)
11:50 " <수학①②>	20:00 " <수학①②>(재)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법 특강 <국어>	20:40 " <역사①>(재)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법 특강 <국어>	21:20 " <국어③④>(삼)
13:50 TV 중학 <수학①②>(재)	22:00 " <문학③>(재)
14:30 " <국어③④>(재)	22:40 " <비문학③>(재)
15:10 스텔랜드	23:20 세계의 아이들

“섹시미, 한뼘 콤플렉스였지만 이젠 장점”

두번째 싱글 앨범 ‘이너 스페이스’로 컴백한 가수 박지윤

가수 박지윤(32·사진)은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스타덤에 오른 장동건과 1994년 동반 광고 모델로 하이틴 잡지를 찍으며 데뷔했다. 올해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20주년. 그 사이 박지윤에게 발탁돼 1997년 1집 ‘하늘색 꿈’으로 가수 데뷔를 했고 2000년 4집 ‘성인식’을 히트시키며 엄청난 화제와 함께 시대를 대변하는 섹시 가수로 꼽혔다.

그러나 2003년 6집을 끝으로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그는 6년 간의 공백기를 보내며 음악적인 반전을 꾀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7집(2009)과 8집(2012)에서 싱어송라이터에 도전해 어쿠스틱 사운드로 재운 음악을 선보였다.

음악의 온도차가 너무 큰 것도 놀라웠지만 그는 당시 댄스 가수란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89와 계약하며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첫번째 싱글 ‘미스터’에 이어 17일 발표한 두번째 싱글 ‘이너 스페이스’(Inner Space)에서도 밝은 음악에 맞춰 안무를 선보인다. 7·8집 때와 비교하면 다시 변화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인터뷰한 그는 “나조차 다시 춤을 추지 않을 거라고 느꼈기에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했다”며 “그러나 프로듀서인 윤종신 오빠가 춤은 노래를 위한 하나의 연출일 뿐이라고 조언했다. 댄스 가수로 전향한 게 아니라 노래를 살리고자 필요한 요소란 점에 공감했다. 사람은 변화하니까.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7·8집 때 온전히 자신이 추구한 음악을 선보였을 때의 경험도 한몫



다. “두장의 앨범이 대중과 호응하지 못해 갑증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이였다.

이번 싱글앨범은 ‘이너 스페이스’란 제목처럼 박지윤의 속마음을 전보다 솔직하게 드러냈다.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자 수록곡들의 작사에 참여했다. 포스티노가 작곡한 타이틀곡 ‘빽(Beep)’은 복고풍의 댄스곡. 그가 싱어송라이터 시절처럼 작사를 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댄스를 더한 점은 그간의 가수 활동에서 절충점을 찾은 모습이다.

그는 “이번엔 가사가 한층 솔직하고 대담해졌다”며 “‘빽’은 섹시가 울릴 때 나는 알릴음이 방송에서 비속어가 나올 때 처리되는 ‘빽’ 소리 등 이중적인 의미다. ‘다른 빽이 생긴 듯해’라며 내 남자를 뺏아간 여자를 ‘X’ 대신 ‘빽’이란 가사로 표현했다. 솔직히 이런 가사를 불러볼 적이 없다”고 웃었다.

또 다른 곡 ‘나의 뇌구조’에선 지난 사랑에 대한 경험을 곱씹어 가사를 썼다.

“풀이켜보면 사랑해서라기보다 외로워서 만난 적도 있고 상처만 감정이 금금해 이별을 택한 적도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30대가 되고보니 ‘이런 감정에서 그랬던건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성인식’ 때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 여전히 섹시 댄스 가수의 대명사로 불린다. 걸스데이, 원더걸스 출신 선미 등이 ‘성인식’의 이미지를 차용했고 수많은 걸그룹들이 섹시 콘셉트로 활동하는 지금 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예전엔 ‘섹시하다’는 말이 콤플렉스였고 그 이미지를 벗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자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부분인 만큼 장점이라고 여겨요. 중요한 건 여가수에게 섹시 콘셉트는 꼭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이지요. 그 이미지가 굳어지면 음악이 가려지거든요.” /연합뉴스

누군가는 재미로 읽지만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찌라시는 누가 만들고 누가 퍼트릴까

새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

인터넷을 떠도는 은밀한 소문이 모이고 다시 퍼져 나가는 곳은 일명 ‘찌라시’(지라시)라 불리는 사실 정보지다. 장·재계,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정보와 소문과 지어낸 이야기가 뒤섞여 ‘보터’ 식으로 퍼져 나가는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재미로 읽고 말지만,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어떤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치며 하다가도 또 다른 이야기에 몰려 있던 일이 되기도 한다.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은 누구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던 ‘증거가 찌라시’에 대한 취재 리포트 같다.

‘찌라시’의 피해자가 된 연예인 매니저가 소문의 근원을 역추적해 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뜻에 따라 돌아가며 그들의 뜻을 위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쉽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비교적 담담하게 보여준다.

자신을 믿고 따른 신인 여배우를 위해 밑바닥을 뛰어 헌신하던 매니저 우곤(김강우 분). 여배우가 성공의 문앞에서 한 발 더 내딛으려 할 때 터진 대형 스캔들로 여배우는 목숨을 잃고 우곤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는다. 소문의 시작이 ‘찌라시’라는 걸 알게 된 우곤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다. 2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121분.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7일(음 1월 18일 己未)

<b>子</b>	36년생 대법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기분에 충실 하는 것이 좋으리라. 60년생 관리를 잘 해주자. 72년생 현재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84년생 피상적이지 않은가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82, 88
<b>丑</b>	37년생 보편적인 것이 무난하다. 49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편을 해소해 주리라. 61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73년생 경청하자. 85년생 영건 실패가 풀리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73, 09
<b>寅</b>	38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할 요청된다. 50년생 조용히 인내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62년생 사막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임하자. 74년생 현재로서는 관국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변수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2, 30
<b>卯</b>	39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자. 51년생 거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니라. 63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라. 75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대국을 망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1, 62
<b>辰</b>	40년생 급히 손질을 요하는 부분이 보인다. 52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경험을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느니라. 76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떠오르니 만사여의도다. 행운의 숫자 : 39, 24
<b>巳</b>	41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 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53년생 세심한 점검 속에서 숨은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진귀한 기회이니 수용하자. 77년생 과잉 인식은 오히려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6, 40

<b>午</b>	42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면 수월하다. 54년생 불원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66년생 당황하지만 없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78년생 입장이 상반되니 참에한 대립 관계에 놓이겠다. 행운의 숫자 : 13, 66
<b>未</b>	43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우니라. 55년생 외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자. 67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79년생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9, 48
<b>申</b>	44년생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56년생 육식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 68년생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분장은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80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과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8, 53
<b>酉</b>	45년생 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위기를 모면하리라. 5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69년생 불합리함을 청산하면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 81년생 불원하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6, 42
<b>戌</b>	46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적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58년생 상호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70년생 상대의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82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43, 16
<b>亥</b>	47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59년생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71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하여 왔던 것 자체가 문제다. 83년생 일반적이라는 무리함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79,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제철 맞는 미산만의 흥합



요리버전(EBS·오후 8시20분)=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파도가 적고 사남지 않은 미산만의 바다에서는 풍성한 플랑크톤을 먹으며 흥합이 자라고 있다. 6월에 이식한 흥합 종패는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채취를 시작하는 때 2월부터 봄까지 걸여올리는 흥합의 살이 가장 아물고 맛도 좋다. 제철을 맞은 흥합답게 양식장의 5m가 되는 양식 줄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흥합이 풍년이다. 흥합이 바뀌니 줄에 붙어 서식할 수 있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흥합 수염’ 덕분에 이 때문에 흥합은 어디든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모른다. 사실 우리가 먹는 흥합은 지중해 출신으로 15세기 대항해시대 선박에 붙어 전 세계 연안으로 퍼진 것. 바다 건너 온 흥합이 이제는 ‘국민 음식’이 됐다. 양식장의 부표를 향하는 뱃길에 올라 흥합이야기를 들어보자.

104세 어머니와 백발의 아들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연통에서 새하얀 연기가 솟아내며 피어오르는 파란 지붕의 집에는 백발의 어머니와 주름살 가득한 아들, 그리고 어미 소와 견공 푸리가 함께 살고 있다. 13년 전, 영감님은 먼저 북망산천으로 떠나고 세대주가 됐다는 백발의 할머니는 1911년생이다. 100년하고도 4년을 살아오고 계신다. 그 오랜 세월, 한말재 할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 일평생 애잔한 마음으로 자신을 품은 모정의 세월을 살고 계신다. 일흔을 앞둔 나이, 아들 삼길 씨는 평생 어머니 곁에서 산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건, 군대에 갔던 3년뿐이다. 그 사이 삼길 씨는 사고를 당해 다른 사람이 되어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고 평생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콤비 코미디언 남성남은 지금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1970~80년대 재치 있는 입담, 찰떡같은 호 흡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들었다 한 코미디언 명품비가 있었다. 바로 50년 세월을 함께 했던 콤비 코미디언 남철·남성남이다. 이들은 전매특허인 ‘왔다리 갔다리’ 쉼뚝만 아니라 만담, 노래로 전곡을 누비며 ‘한상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 준 대한민국 최장수 콤비 코미디언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남철의 죽음으로 인해 콤비 플레이는 막을 내렸고 남성남은 한 달간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짝꿍 남철을 떠나보내고 8개월 후 공연 남성남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성남의 현재 나이는 84세.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15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웃음의 전도사로 활약 중이다.